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

25일까지 은암미술관서 진행
회화·설치·영상 등 매체 다양
사진기자 김봉규 등 5인 참여
"천상의 세계에 위로와 연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에서 위로와 연대의 힘을 담은 기획전시가 열린다. 은암미술관은 오는 25일까지 2024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천계天界의 바람이 되어'를 연다. 김봉규, 김병택, 박정용, 박철우, 정영창 작가 등 5인이 추모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 회화 10점, 설치 1점, 영상 1점, 사진 34점 및 전시연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로를 넘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대형 참사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김봉규 사진작가는 지난 10년간 성실한 기록자로서의 발자취를 그려낸다. 35년 차 한겨레신문 편집국 사진부 선임기자인 그는 세월호 침몰 당시부터 선체 인양까지 3년간 팽목항에 머물렀던 시간을 되새긴다. 사진에는 사건 기록과 전달을 넘어 이 시대 보통의 아버지로서 참담한



정영창 작 김관홍. 은암미술관 제공

사건을 바라보는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이 묻어나온다.

김병택 작가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국가의 역할에 질문을 던진다. 특히 신작 '해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통해 희생자의 넋과 원혼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빈다. 붉은 풍경이 고통스러운 지난 10년간의 나날을 떠오르게 한다.

박정용 작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못다 핀 꿈이 마치 꽃처럼 승화되기를 기원



박정용 작 승화된 꽃. 은암미술관 제공

하는 마음에서 신작 '승화된 꽃'을 선보인다. 오브제 작품으로 잠들어 있는 소년의 주위에는 노란 나비가 지키고 날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중등 교사로 그 누구보다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박철우 작가는 2년 전 겨울 방문한 진도 팽목항에

서 몸소 느낀 감정과 기억을 바탕으로 제작한 '2014-그날'을 선보인다. 고요한 바다 밑에 침잠된 영혼을 닦고 닦아 불러온다.

머나먼 타국, 독일에서 세월호 소식을 접한 정영창 작가는 꾸준히 팽목항과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의 흔적을 수집했

다. 그는 '춧발' 등 사진과 회화 작업을 통해 상실 후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슬픔에 공감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 등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위인들을 다시금 소환한다.

전시는 재발 방지 공언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하는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본 전시를 통해 십년 전 유명을 달리했던 망자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천상의 세계에서 따스한 바람이 되어 자유롭게 지내길 기원한다.

은암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관람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오픈식은 오는 5일 열린데, 부대행사로 김준호, 김은숙 배우가 참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은암미술관은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일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어린이 발레 입문자를 위한 공연 '백조의 호수'

ACC재단 13~14일 어린이극장

"발레의 교과서로 불리는 '백조의 호수' 주요 장면을 해설과 함께 즐겨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난생처음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를 오는 13~14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꼽힌다. 음악과 안무는 물론 1인 2역의 발레리나,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환상적인 백조 군무 등 발레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작품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백조의 호수 중 대표 장면인 백조와 왕자의 춤, 네 마리와 두 마리 백조의 춤, 왕자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무도회에 등장한 여러 나라 공주들의 춤

등을 선보이는 갈라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레 마스터가 발레의 역사부터 작품의 유래, 무대 뒤 이야기, 발레의상과 토슈즈의 유래, 동작 해설 등을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며 관객들이 발레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조의 호수'는 13·14일 오후 2시 진행되며,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관람료는 1만5000원이며 ACCF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ACC재단이 기획한 '난생처음 시리즈'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 처음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설·체험있는 공연,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공연 등 형태의 공연을 통해 극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도선인 기자

따사로운 봄과 만나는 4월 광주상설공연

매주 토·일 광주공연마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마당극 '뛰는 토선생...'

광주예술의전당이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합창·발레·국악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하는 '광주상설공연'을 4월에도 이어간다.

4월의 첫 무대는 6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봄의 여행'이다. 천사 같은 목소리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과 NS 재즈 밴드가 협연해 색다른 무대를 준비한다. 'Aprile', '고향의 봄', '나물캐는 처녀', '벚꽃엔딩' 등 봄 내음 가득한 노래들을 준비했다. NS 재즈밴드는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 보컬의 5인조 혼성팀으로, 지역에 재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이다. 재즈밴드와 소년소녀합창단의 조합이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된다.

13일에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무대가 준비돼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보았던 발레 무대를 가까이에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굽사들이 망아지' 중 '프레스코' 작품 속, 벽화에서 해방된 여인들을 표현한 유쾌한 무대뿐만 아니라,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발레 작품 '라 바야데르' 중 'Indian Dance'에서의 전사들의 북춤 등이 준비된다.

20일에는 시립합창단이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 무대를 올린다. 한국·이탈리아·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가곡과 성악가들의 노래로 풍성한 합창 무대로, 어딘가에서 익숙하게 들어보았던 아름다운 노래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7일에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관현악 합주곡, 대금 연주, 노래곡 '난감하게' 등의 국악 무대를 연다.

매주 일요일은 2024 광주상설공연 전

통예술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국악상설공연'으로 진행된다. 4월 국악상설공연은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의 신(新) 마당극 '뛰는 토선생' 위에는 '별주부'이다. 탈모에 걸린 용왕의 지시로 용궁의 만년 인턴사원 별주부가 정구직을 대가로 토선생의 간을 구하러 갔다가, 토선생과의 달리기 대결을 펼친다. 이어 산신령을 만나 '건강 십계명'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판소리 수궁가와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융합한 새로운 마당극으로, 익숙한 옛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열린다. 모든 좌석(사전예매)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노부영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위촉

국립남도국악원은 1일자로 노부영(59·사진) 제7대 국악연주단 신임 예술감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노감독은 공개모집에 의한 경력경쟁 채용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됐다.

최초 임기는 2년이며 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5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노부영 예술감독은 대금 전공으로 서울대 음악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1987~



200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휘자(2008~2009),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2011~201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예술감독(2020~2022) 등을 역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이수했고 KBS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국립국악원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

꽃으로 피어난 '수채화 어반스케치'... 김경민 개인전

5일까지 일곡갤러리

일곡도서관 갤러리는 어반스케치 릴레이 개인전 마지막 순서로 김경민 작가 '어반...색으로 물들이다'를 오는 5일까지 연다.

김경민 전시에는 화려한 색의 수채화 작품과 일상을 그려낸 어반스케치를 감상할 수 있다. 10여 권 드로잉북도 전시하고 있다.

디자인을 전공한 김경민은 긴 시간 동안 붓을 잡지 못하다가 10여년 전 수채화를 통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어반스케치에 매력을 느껴 수채화 작가이자 어반스케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민 작 하원마을의 장미. 일곡갤러리 제공

결혼 전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작가는 결혼과 동시에 학원을 그만뒀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가정생활에만 충실했던 그녀

에게 그림 그리는 것은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작품 속의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그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이자 꿈이다. 그녀는 행위를 통해 마침내 꽃은 세상을 물들이며 그녀의 세계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윤민화 광주예술공감연구소대표는 "서재은, 양송희, 김경민의 릴레이 개인전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이자 교육자, 주부였던 작가들이 그림을 통해 세상을 보고 꿈을 이뤄 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작가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

